

‘Tomorrow-강아지 마을’에서는 꿈을 통해 개인적인 결여가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가 메워진다. “아버지의 작은 텃밭에 들어가는 유기견들은 사람을 떠나지도 사람 곁에 붙어 있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다. 어느 날 달동네 비슷한 마을에 갔을 때 순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명랑한 똥개들이 서로의 대문을 드나들며 마실을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에게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지거나 버려지기엔 그들은 너무나 당당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 속에서 사람 없이 명랑당당한 강아지들만 난무하는 마을을 그려 보았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 강아지 마을에서는 유기견이 없다. 왜냐하면 유기할 주체인 사람이 사라지고, 개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줄 알던 강아지들이 버려지는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익명의 똥개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된다.

작가가 달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얻는 실제의 이미지들은 그것들이 조합되어 가상공간을 구성하지만, 이 강아지 마을은 작가에게 비현실적인 공간이 아니다. 작가가 스스로 걸었던 골목 골목의 느낌이 발에 남아 있고, 작가가 현실에서 마주쳤던 강아지들이 살아나서 작가에게 말을 걸기 때문이다. 이제 유기견과 똥개들은 실재하는 가상공간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존재의 현전現前를 발산한다. 작가는 폴라쥬라는 장치를 통해 강아지들을 위한 마을을 건축하고 그 구석구석에 이야기들을 숨겨놓고 있다. 각각 다른 동작과 행동을 하며 강아지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연출하고, 관람객은 이제 사진을 ‘보는’ 데서 나아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게’ 된다.

이 동네가 구성된 장면은 마치 영화 ‘Cinema Paradiso시네마 천국’(1988)의 첫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카메라는 토토가 사는 마을을 하나의 이어진 샷shot으로 마을 광장과 지붕을 넘나들며 빨래를 너는 여자, 카페에서 에스프레소Espresso를 마시는 사람들, 경사진 비탈에 줄지어 있는 집과 창문들을 보여준다. 마을 전경을 끊기지 않은 샷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을과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한 장소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길과 광장, 지붕을 넘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친구들과 놀이를 즐기는 각각의 강아지들이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고 마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여러 시점이 결합된 전체 조망을 통해 드러낸다. 이는 강아지 마을에서는 주인공-조연, 주체-객체가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고 주체라고 인식하는 작가의 이상idea의 표출이다.

/ 문성호